

◀기쁜 우리 날들▶ “퇴임하면 꼭 교회 나가마”

남병곤 (기자)



현재 육군대학에서 군사전략과 손자병법을 가르치고 있는 노병천 대령(53세·자운교회 장로) 그는 그가 최근 펴낸 “박정희 마지막 신앙고백”(부제:최초로 공개하는 박정희 전도 비화. 도서출판 ‘대거’)에서 털어냈다.

노 대령은 10 26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인 1979년 7월8일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육사 35기인 그는 육사 37기인 박지만 생도를 밀착 지도하게 된 인연과 생도 시절 방황했던 지만 군을 체벌까지 하며 교회로 인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소위로 임관된 후 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초청을 받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커다란 맥주잔에 거품이 넘치도록 따라줬으나 노 소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실 수 없다"며 용서를 빌었다. 박 대통령은 그런 노 소위를 보고 씨익 웃더니 "그래, 내가 마시마!" 하고는 술을 대신 마시고 나서 호탕하게 웃었다고 한다.

순간 노 소위는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다시 간절히 말을 이었다.

"대통령 각하,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바람에 나는 거와 같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말이 없었다. 노 소위의 눈이 뜨거워졌다.

잠시 후 박 대통령이 상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그래!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꼭 교회에 나가마!"

"정말입니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 약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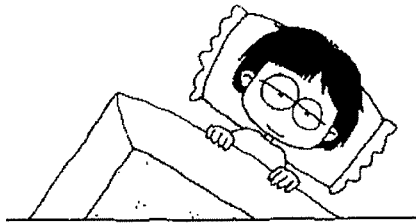
노 대령은 "이 대답은 박 대통령이 운명하기 전 신앙에 관해 언급한 마지막 말이었는지도 모르겠다"며 아쉬워했다.

노 대령은 지난 4월 초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27년 만에 박지만 EG회장과 만났다고 한다. 박지만 회장은 현재 소망교회에 나가고 있으며 교회에 출석하기가 어려울 때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근황을 알려줬다

◀그림 말씀▶ 기도 소리

‘밤마다 어머니의 기도소리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지. 어린 내 맘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에서 간절함과 진실함이 느껴졌었어’

“자녀를 부모의 기도로 잠들게 하십시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 (히4:12-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2008 송구영신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8년 12월 31일
☎ 36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은

벤 존슨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보다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로,
그가 무엇을 얻었는가보다는
그가 무엇을 주었는가로
한 사람의 인생은 평가되나니.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재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그의 출생이 문제되는 게 아니다.

그의 신분이 어떠했는가 아니라
그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로,
그리고 하나님에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충실히 완수했는가로
한 사람의 인생은 평가되나니.
포근한 위로의 말로
늘 남의 눈물을 닦아 주고
웃음꽃을 선사하는 것,
이런 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다.

그가 무슨 교회에 다녔는가보다는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였는가로,
그가 어떤 교리를 가졌는가보다는
그가 진정 이웃의 진실한 벗이 되어 주었는가로
한 사람의 인생은 평가되나니.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신문에 쓰이는 평가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애도하는지,
인생의 평가는 이런 것이다.

◀말씀 따라 행하기▶
성경 구절은
꽂꽂 얼어붙은 마음을 깨는 도끼

◀인품 따라 행하기▶
인격이란
어둠속의 내 모습

2008년 송구영신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갈보리	다 같이
*찬 송 Hymn	23 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 송 Hymn	460 장	
문회 기도 Pray		김성국 목사
	성찬식 분병과 분잔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5:6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세월을 아끼라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94장	다 같이
새해소원기도 Offering Pray	1.가족 2.가족경제 3.교회	
치유를 위한 기도 Healing Pray	자기자신, 가족, 교우	다 같이
응답 송 Response Song	358장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갈보리 성경 100독:65독 수지(윤명화 집사 딸) 66독 수빈(윤명화 집사 딸)
67독 윤명화 집사

◆1월 예배위원◆

◆1월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특송	주차부	안내
4	김반석			최현철 항존직	오지영 임혜자
11	김영길				박수현 백제성
18	노은숙				
25	박일영	구미희	권사		

일자	주일 & 예배	모임
4	신년주일	
11		
18		
25		설날구역첫모임(25) 수요예배시작(28)

『2008 신앙생활』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 1년중 성경 1번 읽기 은혜로운 구절 밀줄치기 갈보리 성경 100독 하기	『교회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토요 6:00 pm

1. 2008년 송구영신예배

*잘 살아왔는가 물으면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보다 훌륭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예배 후 Tea Time 가지면서 덕담으로 새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2009년 교회 표어 “말씀을 읽었으니 말씀을 전하자”

*물을 고이게만 하면 부패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고집스런 생각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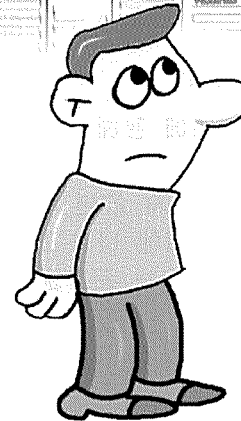
*2009년 우리의 전도방법 “친절, 친절 또 친절”

(1)교회출석하지 않는 이웃에게 친절한 행동과 부드러운 억양을 보이십시오

(2)교회출석한 새교우를 잠시도 혼자 외롭게 있게 마십시오

3. 신임집사 임명 <신임> 윤명화

2008년 나의 10대 뉴스에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가 1위에
올라 있기를
바랍니다.